

# 국내 PL 3社 본격적으로 종계 수출개시

— 수출업체 지원 위한 특혜조치 필요 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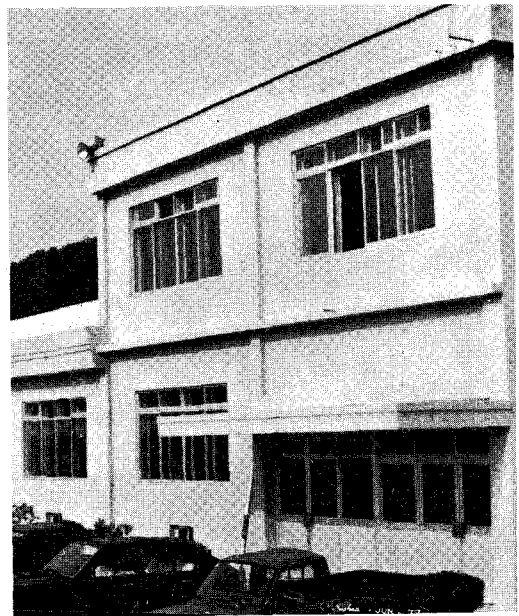
계속적인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 양계업체에 금년들어 P·L농장들의 종계와 실용계 수출이 활발하게 추진,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밝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.

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일농원(대표: 차두홍)은 금년 1월 11일 아바에이커 종계 4,600수를 일본으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9,200수를 태국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8월말 현재까지 총 66,430수의 아바에이커, 야콘, 아나크 종계를 일본, 태국 스리랑카등지에 수출하였으며 아바에이커 실용계 248,300수를 홍콩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여 총 173114.50\$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.

또한 한협종계장(대표: 박준영)도 79년 12월부터 코브종계 17535수를 일본지역에 수출하였으며(수출금액: 29311.75\$). 천호부화장(대표: 이제조)도 지난 5월 마니커 종계를 3,450수(수출금액 6185.70\$)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으며 홍콩지역으로 종란 83,520개(수출금액 19198\$)을 시험 수출하였다.

아울러 위 농장들은 계속적으로 수출시장의 개척을 서두르고 있는 동시에 앞으로의 상당한 물량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계속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계속 수입만 해오던 종계의 수출로서 우리나라가 종계수출국이 되어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트게되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.

그러나 사료 등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로 말미암아 외면되고 있으며 검역수수료도 수당 5원씩을 받고 있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장애요인이 여러곳에도 사리고 있어 앞으로 국내 종계업체에도 수출업체를 지원해주는 특혜 조치가 한시바삐 마련되어져야 함을 바라고 있다(安南信)



금년들어 30여만수의 종계와 실용계를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한 한일농원